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이년하장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 105(2016)년 새해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이년하장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방글라데শ인민민공화국 대통령, 마카리스탄공화국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흐르바즈까공화국 대통령, 편드나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모자비그공화국 대통령, 산토네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류니지공화국 대통령, 에칠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몽골민주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위원장, 팔레스타인민부쟁전선총비서,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총위원장 총비서, 인도네시아공산당(팔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팔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카나다공산당(팔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전국지도자와 총비서, 카나다공산당(팔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가년하장을 보내어왔다.

</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강성번영의 조국력사에 길이 빛나리

절세위인의 애국의 리상 위대한 현실을 펼치여간다

당 제 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대고조장군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조국땅에 봄의 흐름을 실어 오는 2월이 왔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와 그리움의 정과 열속에 조국의 한초한초가 흐르고 있다.

온 나라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의 거세한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유훈관철전의 거센 불길속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생에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걸친 전략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가 어떤 빛나는 결실을 이루어왔던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갑격과 환희로 끌어들인 역사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많은 대작들을 발표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들고나가야 할 영원한 투쟁의 기치를 마련해 주시였다.

그 불멸의 대강들은 그대로 온 나라 인민이 우리 장군님의 명도의 위대성을 더 잘 알게 하였고 장군님의 사상으로 더욱 풍족히 무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 나가야 하는지를 한눈에 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우신 배두산혁명장군의 품의 군력을 더욱더 백으로 끌어들여 장군님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며 장군님의 숭고한 덤불에 빛나게 실현하여 할 무렵도 성스러운 혁명파 일나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하는 길에서 한치의 양보와 드림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도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며 장군님의 숭고한 덤불에 빛나게 실현하여 할 무렵도 성스러운 혁명파 일나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하는 길에서 한치의 양보와 드림도 있어서는 안된다.

자신께서는 장군님의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찰하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가 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신다.

온 나라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의 거세한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유훈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헌신하는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데 있다!

모든 성과의 지름길은 유훈관철전에 있음을 밝혀주시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바

로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혁명방식이 있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출도 있다.

천만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로 이끌어주시면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많은 판찰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는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의 거대한 진영과 평양으로 끌어들여온 혁명군을 마련한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숨김없이 어려운다.

진정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느라면 당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마다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멋쟁이 공장, 우리가 결심하면서 떠나온 것은 어마나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장군님의 뜻과 남원대로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철저하게 관찰하여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놓고 자려고 잊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올해의 총진군에서 3대혁명소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책략을 가지고 떠밀어줄 때 성과가 크다

황 해 북 도 당 위 원 회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3대혁명소조사업의 불멸의 대강을 높이 들고 전진해온 지난 3년간의 나날을 그나마 감회와 추억 속에 둘러보는 전국의 수많은 당시 일군들을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필승의 무기로 풀어 줬던 생활에는 나날에 이들은 소조사업에 대한 당직지도를 짜고 들어 성과를 거두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가 과연원 단위의 당책일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소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끌리며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당직과업으로 끌어줘고나야 합니다.』

3년 전, 경에 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사업을 받아온은 무한한 결정과 흥분속에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직지도를 더욱 심화시킬 방도를 찾던 책임일군은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리는 조직의 글줄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었다.

그렇게 되니 도당위원회 혜당

사람들은 원산구두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을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청년들이라고, 보배들이라고,

지난해 11월 공장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기술력 신성과들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리와 만난 초급당비서 전명

화동부 역시 그

터였다.

제 자식 자랑

이 라도 하듯

그는 소조원들

이 받은 수십

개의 증서들을 펼쳐보이는것이

었다.

국가발명증서와 과학기술상

과목증, 창의고안증서들...

하나하나의 증서마다 탐구의 길에 바쳐진 소조원들의

피파는 열정과 고뇌, 땀방울이 어려웠는것만 같아 쉬어 눈길을 뗄수 없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기 위

하여 청춘의 열정과 창조적인

지혜를 다 바치며 끝장을 불

때까지 이익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일군이 들려준 하찮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3대혁명소

조원 강수민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

원산구두공장에 과연된 3대혁명소조원들

여기 기술자들이 시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파제를 경험도 없는 소조원이 말아안았으니 사람들의 반응은 더 말해 무엇 하랴.

소조원들까지도 막아나섰다.

지금껏 해온 일도 적지 않고 소조생활기간도 남자 남자 앉았는데 공연히 승산이 없는 일에 뛰어들었다가 꼬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 수민동무는 결심을 굽

히지 않았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에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탐구의 자욱을 내걸었다.

한국수령 양경봉과 종합대학이

인민대학습당, 전문원기기판

찾아 그가 다른 걸은 그걸

마이고 신발설계와 관련한 책들

을 읽었다.

그들은 농근맹일군들과 일군들이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쏟아온

모든 농근맹일군들이 사업

을 향해 일군들이 사업에

나서는 일군들이 사업에

</div

장편서사시

태양의 하늘

한동선

데지에 피여난 한송이 들꽃이
어디 다 헤아리파 태양의 은혜로움을
봄빛을 즐기며 우짖는 종탑새가
어디다 노래하랴 태양의 따사로움을

우리

우리 태양 우리 봄

붓을 든 이모은

이름없는 그 한송이꽃

더듬어 시상을 고르며

나래짖는 이 마음은

하늘을 날아예는 그 종탈새

용서하시라 사람들하여
우주를 밝히는 눈부신 그 광채
내 여인 필치로는 다 닦아내지 못하리니
허나 내 백천밤을 지새워
그 혼엄한 빛 한줄기라도 그려낼수만
있다면

그 열화의 한순간이라도 담아낼수만
있다면

아, 나의 태양

우리의 태양!

그이 자애의 빛과 열로 숨쉬는 이

땅에서

라선은 조국땅이 끌나는 기슭
미나먼 그곳에도 해빛은 가득 차 넘

치거나

태양의 빛발이여, 그꼴은 어디인가

1

오, 그밤

8월의 그날 그밤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자장가속에 잠든 아기들의 요람과
숙제하는 아이들의 시간표를 덮치며
단란하게 둘러앉은 저녁상을 뒤집어
엎으며
물먹은 산을 베여 길거리에 밀어던지며
육중한 구름장들이 통째로 쏟아져
내렸다

진린이면 이보다 더했으랴
미친듯이 쓸어붓는 비屠杀기를 걷어안고
기쁜술 물어쉬던 뚝이 터져나간 그방
포악한 승마수단 강기를 푸는데우고
두억시니같은 물사태가 덮쳐든 그방

난바다같은 물시위를 헤가르며
도로를 건느는 사람들이
금시 눈앞에서 없어지고
집들이 마을들에 간대없이 사라지고
부처지시의 생사여부도 알길없던 밤
죽음의 공포가 냉을 희통하면 그밤

나무뿌리 드러난 산동성이우에서
물이 차오르는 단층살림집지붕우에서
후수 허리에는 아빠트옥상에서
사람들은 주고받은 밀
-평양에도 이렇게 비가 올까?
-평양은 물에 잠기면 안될텐데…

아, 라선에서 평양은
연연 2천여리
난생 처음겪는 물살리속에서
난생 처음보는 살풍경앞에서
이야이하며 사람들은 평양을 걱정했던가

그곳엔 모두의 어버이 계시고
그곳엔 모두의 고향길이 있어
그곳엔 자손만대 안겨살 미래가 있어
평양강 비구름이 하늘에 또 있거든
차라리 예다 솔으라 쓸어아지라 기원한
8월의 그밤, 운명의 밤이여

* *

세벽녀
날이 밝을무렵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앞에 목이 맙었다
너나없이 아닌 방중 자리를 치고 나와
너나없이 맨발에 속옷비단이건만
누구나 가슴에 안은건 수령님들의
초상화…

아침녁
풀이 쳐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시가지를 내려다보았다
불난 뒤는 있어도 물난 뒤는 없다고
큰운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것은
감량과 비위들과 통령이 쳐진 통나무
들뿐

그리나
한걸같이 안도의 숨을
그리운 느꼈다
벗어하고 자랑스러움을

진저리쳐지는 홍수에도
변함없이 끄떡없이 솟아있지 않는가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것이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화,
영생탑
사적비들과 표식비들…
고색창연한《농민의 집》조차…

새끼리
인류의 재난사는
콩크리트아빠트를 치갈거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폭우와 사태속에
칠근한우리들에이지 않은 옛《농민의
집》이

폐허의 한복판에 살아온 이 기적을

《농민의 집》그곳엔
백두산너장군파 우리 장군님
일찌기 다녀가신 사연이 있어
가산에 못 비길 혁명유적이 있어
보금자리 내쳐들네 폭습 내대고
사람들은 싸웠다 폭우와 물사태와

모래마대 쌓으며 어깨성을 쌓으며
천동번개 내려치며 구름장을 무너뜨려
모든것을 허물며 폭기는 부렸으나
가슴마다 뿌리박은 결사옹위의 신념
만은 허물지도
파묻지도
꺼꾸려뜨리지도 못했더니

누가 이겼느냐
자연의 팽창이냐?
인간의 신념이냐?

2

오, 그밤

8월의 그날 그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께선

최전방을 지휘하고계시였다

밤늦도록 불밝은

최고사령부 작전대 우엔

시시각각 쌓이는

아군의 기동보교와 적정자료들

엄업한 그이 시선은

적진을 노리고

심오한 그이 사색은

전쟁과 평화의 계선을 넘나드시여라

전쟁—이는 파피와 살독!

평화—이는 부흥과 복리!

번역으로 쓰구치는

우리의 담한 전진을 가로막으려

촘스런 불장단을 일삼던자들

끌끌내 평화에 도전해나섰더니

용서할수 있으랴

우리 인민과 군대의 의지를 시험하곤듯

감히 도발의 불을 걸어온

평화의 원주, 반통일분자들

그이께선 투트—우! 훑어보시였다

절감모 두번득이는 최전연공격출발

계선을

진지로 화한 일련의 마을들을

입대, 북대를 탄원해나선

만평창장들의 날장같은 서명이

심심히 서리날자는 이 나라 요새전역을

얼마나 훌륭한 군대와 인민이

나에게 힘을 주고있는가

명령만 내리시라

단숨에 단숨에 남으로 노도처가리라

무지질증 기게 높은 병사들의 목소리

우리도 싸우리라고

원수님 계시는 한 우리는 이긴다고

마디마다 진정어린 기도녀성의 편지…

준엄한 이 시작

더더욱 들통에는 그이 신념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번개처럼 움직이는 우리의 무력은

일당백령강장군, 최정예강군!

당을 따라 시현도 역경도 함께 헤쳐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영웅인민!

나와 함께 어깨걸고 미폐를 향해가는

우리의 청년들은 최강의 전위투사들!

우리에 애어서

전쟁—이는 투트지 않다

자기 제도를 짐으로 보금자리로 이기며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다른 마음들이

통한이 되고 철갑이 된 이 땅

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함이라면

죽음도 불사할 각오와 의지는

누구도 가질수 없는 우리의 첨단무기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자 없기에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

최후의 승리도 반드시 우리의 것

그 시각

애국애족에민으로 불리는

우리 장군의 강철의 심장에선

인류가 감사할

세기적증대단결이 내려지고있었으니

아, 온 믿족은 그려안으신 그이

단신으로 치르고계시였다

총포성없는 마음의 전쟁을

성스러운 인류미래의 수호전을

위기일방의 시한탄우에서

평화가 식은땀 흘리던 8월의 그밤

정의의 화신 김정은장군의 불멸

불휴의 밤이여

민족이 구원된 8월의 그밤

행성이 구원된 운명의 밤이여!

3

새벽녀

날이 밝을무렵

그이께선 보고를 받으시였다

멀고먼 라선땅에서 남아온 소식

눈물은 삼키며 울린 천재의 소식

왜 이리도 가슴이 답답해오는가

심장은 비트는 듯 찌르는듯

淚다가는 멈추시고

멈쳤다가 또 읽으시며

몇번이나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보여온다 그이 눈앞에

파묻혀버린 절, 무너져내린 아빠트들

흙사장에 남아온 미움을

베루장단 암상한재 끊어져나간 철길

이며

돌사태, 통나무사태에 형체 없는

도로들

아, 하늘도 무심쿠나!

인민위해 그리도 애쓰시는분
인민에겐 한없이 여린 그이의 가슴
어쩌면 이다지도 허린단 말인가

개선하시는 김정숙어머님과 장군님을

제일먼저 맞이한 사연

자랑으로 몰려 가는 선봉사람들

조국땅 한풀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리들 끌들이온 라진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 꿈꿔한 참변을 들의운단

말인가

흐려지는 그이 눈앞에 다가오는 모습

들이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

그 시련도 그악하게 딩고신 사람들

부푸는 문의 품을 암고

밟고밟은 배일을 굳이 밀어 사랑하던

그 순간화에 도전해하고계시였다

생사를 다향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천행으로 뻘쳐온 구원의 손길앞에서도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

초상화와 당증에 물 한컵

스밀새라

소중히 가슴에 불안온채

평판하는 물속에 헤쳐간 사람들

누구도 그들더러

그렇게 하라 한적없었다

수령을 목숨으로 보유함을

영왕으로 행복으로 여긴 이들

전쟁진짜의 위기와 물란리속에서

수령걸사용위의 정신으로 숭고한

승고한 힘으로 해온 그이의

그 순간화에

우리가

이런 참된 일군들이 있어 우리 생활에 사랑과 정이 넘친다

여전대동강란팡

여전대동강란팡 마을사람들은 자가들이 사는 고장을 득풀이라고 부른다. 득풀은 예로부터 질고 유망한 터전으로 소문난 곳이다. 그러나 삼포산이라 불리우는 해발 1,000여m의 산정점을 향해 외가단길이 뻗어있고 그 뒷쪽으로 무수한 터전마을이 자리잡은 줍고도 긴 풀짜기에는 그 어떤 값진 재부에도 비길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세상하고 아름다운운이 가득차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신실하는 인민의 찬원심부를 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마음속그늘을 가셔주는 사랑과 정

파스한 아침 해살이 대동강에 뿌리박은 산언덕을 어루만지며, 아직은 침침에서 주부들을의 칼도마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오는 이론아침 정에 천 목소리가 득풀마을의 신동성이며 일떠선 이단한 새 집의 창문을 두드린다.

『온 Wheeler, 옥경아! 일어들 났느냐?』

집주인들이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오늘 저녁은 내 좀 늦어지겠다.』라는 말을 남긴 목소리의 입자는 저녁저녁 비탈길을 내려 텐판으로 향한다. 뛰어차창에 다가가 멀리서 사라지는 뒤보습을 오래도록 바매우는 부부의 젖은 눈길...

이렇게 날과 달이 혼란지도 어언 새해, 역천대동강란팡 지내인 민병주동무가 마치도 세간 난 친자식의 집을 찾듯 아침저녁마다 꼭꼭 들려보군 하는 이집은 텐판마을의 전온월, 박옥경혼본부의 정이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런 꿈 같은 행복은 커녕 다시는 이 당시 더디고 일어설수조차 없었고 생각했던 전온월동무, 그는 오늘도 잊지 못할 지나온 나날을 끄적여온다.

어렵곳이 빙글드는 빛살에 그는 가까스로 눈을 봤다. 자기 주위에 물려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별하면 눈길이 문득 낯익은 모습들앞에서 떠났다.

『정신이 좀 드나? 우리 온침이가 꿈내 의식을 차렸구나. 정말 용타.』

이렇게 말하며 땅으로 젖은 머리칼을 비단들어주는 사람은 태아 아닌 텐판지배인 민병주동무였다.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병원소생실이라는 것을 느낀 순간 진온월동무는 이득한 엣칠처럼 어거지는 일들이 하나둘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루 끝진과제를 마감하고비에서 디자인중 막장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동지들을 위해 환호를 서슴없이 내밀 일이며 모진 이웃으로 의식이 가을 가을 흐려지는 자기를 불안하고 뜨거운 오열을 떠드린 눈물이 모습들...

우리는 여기에 한개 텐판을 책임진 일군이기에 앞서 사랑과 정이 없이는 못사는 오직 그것으로 말할수 있고 그것으로만 가능할수 있는 살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려 한다.

마을의 조무매기로부터 나이 지숙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고 스스럼없이 『우리 할아버지』로 부르는 덕천대동강란팡지배인 민병주동무, 그의 삶은 당의 멀사복무정신을 정히 발탁해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꾼, 참된 충복으로 산다는것이 어떤것이며 대중은 워낙 삶을 『우리』라는 부름과 더불어 자기를의 심장속에 그토록 소중히 새겨넣고있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뿌듯한 시아속에서도 침상을 둘러싼 그방을 어여보고 난 뒤에는 미처 물을 펴는 것을 느끼며 전은월동무는 입가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정월이었다.

그날부터 전은월동무의 머리맡에는 언제나 달하고 따뜻한 손길이 매달출 물었다. 보통날에도 텐판의 혁신자인 자리를 놓우려 철창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텐판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수백리 먼 곳까지 다녀온 사실도 알수 없었다.

얼마후 뜻깊은 10월을 맞았으며 양지바른 산언덕에 이암하고 산뜻한 텐판집이 솟아났다. 그 집에 뜻깊은 결혼식이 치러지고 전은월, 박옥경동무가 한쌍의 원양새부부가 되어 새 보금자리로 들어서면 날 밝혀빛은 짐복 면에 『장군님식술』이라고 쇠여진 글자를 걸어민병주동무는 신랑신부에게 말했다.

『이제 온월이 꼭 대지를 활보하게 되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한쌍으로 될게다. 왜냐면 우리 모두 장군님의 한식술이 기운데도 미안하나?』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사업으로 분당한 그를 놀자기에게 불어온두는것은 같아 정온월동무가 미안해 할 때면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준 그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고마웠던가.

그때마다 뜻깊은 밤길에 흘러온

여인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민병주동무는 그에게 행복한 새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도 주저하지 않아 했다. 그가 한생의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결혼식을 뜻깊게 치르도록 온갖 치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영에 동무에게

귀여운 옥동네가 되어나고 어느 그가 자리 소학교 학생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10여년전의 여름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바로 그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평화목사의 친자식의 심정으로 세

